

연령별 재테크 가이드 - 50대 직장인

■ 결혼자금 마련시

결혼이란 누구에게나 설레는 말이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막상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다 보면, 왜 그리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지? 솔솔 드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은 결국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결혼전부터 두 사람이 힘을 모아 결혼준비를 같이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퇴직금 활용시

퇴직!!!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인생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퇴직금으로 모두 커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주식같이 위험한 데 투자할 수도 없고, 너무 장기간 돈을 묶어두어야 하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없다. 은행이자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한 때에는 공격적 투자 보다는 방어적 투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 비해서 안전성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사업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줄이기는 어려우므로 재

산 관리 못지 않게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테크가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퇴직금은 이자 지급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업은 소규모로 하되 퇴직금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말 것, 재테크에 자신이 없으면 연금저축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이나 학자금, 노후 생활여유자금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재테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 여유자금 활용시

내 게 얼마간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 지 모르겠다. 부동산이나 채권을 하기에 돈이 작고,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그럼 주식형펀드나 단위형신탁이나 넣어 볼까? 몇군데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여유자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부터는 본격적인 재테크가 시작 됩니다.

모인 목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한번씩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볼까? 부동산에 한번 투자해 볼까? 등등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아주 힘들게 모은 돈이 아니

던가요? 이런 귀한 돈을 계획 없이 운용 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여유자금 재테크 누구나 쉽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여기지만, 많은 금융기관과 상품들 중에 나에게 맞는 상품은 과연 무엇인지 선택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여유 자금을 투자할지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고민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유자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함께 적극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워 보시지요.

■ 노후 준비시

노후라는 말만 들어도 웬지 두렵다. 늙게 되면 변변한 수입도 없을 것 아닌가. 또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만 간다던데,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책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싶다.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몇 년 전 서울 모 여대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결혼해서 살고

싶은 스위트 홈」의 구조를 그려보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침실, 의상실, 거실, 아이들 방 심지어 장난삼아 개밥그릇까지 그려 놓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계실 방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모실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스위트 홈 설계에는 부모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 농사만 잘 지으면 자신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러나 현대는 다릅니다. 오죽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식에게 버림받는 최초의 세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또한 능력이 없으면 부모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요?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마음대로 주며 한가롭게 노후를 즐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용돈이나 타서 쓰면서 가끔씩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

